

# “꼼꼼한 행정사무감사… 견제 역할 최선”

### 제310회 정례회 12월 13일까지 조례안 등 38개 안건 처리

부산광역시의회는 1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제9대 의회 첫 정례회이자 2022년을 마무리하는 제310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21건, 동의안 14건, 의견청취안 2건, 결의안 1건 등 38개 일반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정례회 주요 일정은 지역 공공기관의 행정 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11월 2~15일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가정 밖 청소년 지원, 부산지역 유통수산물 상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부산연구원 산하 센터의 조직·인력 구성의 개선을 촉구하는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제안이 이어졌다.

부산시의회는 12월 13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



부산시의회가 제310회 정례회를 열고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 예산안을 심사한다 (사진은 지난 11월 1일 열린 제3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모습).

고서를 채택하고,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산하기관에 전달해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부산시·시교육청 2023년 예산안 심사

부산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확정한다. 부산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7.6% 늘어난 15조3천480억 원 규모이다. 부산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7천901억 원(16.2%) 증가한

5조6천654억 원이다.

11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과 교육감의 제안설명을 듣고, 11월 21~2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월 30일~12월 7일 종합심사한 후 12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조현경\_hkcho@korea.kr

## “현장 목소리 2023 예산안 심사 적극 반영”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일현)가 예산안 심사를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친다. 예결특위는 지난 10월 26~27일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현안 사업장 9곳을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주요 투자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 향후 추진계획 등을 청취하고 사업 방향성과 문제점, 예산편성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페라하우스 등 9곳 점검

현장방문 첫날인 지난 10월 26일은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 부산추모공원 장사시설, 우암부두 지식산업센터 건립, 친환경 수소연료전선박 R&D 플랫폼 구축,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현장 등 5곳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다음날인 10월 27일에는 북부권미래교육센터, 자갈치 수산명소화 2단계 건립 <사진>, 부산시교육청 신청사 이전 계획 부지(놀이마루),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현장 4개소를 방문해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관계자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윤일현 예결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시민의 요구 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을 적극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회복, 지역사회 안정, 지속가능 성장, 교육환경 변화 대응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예정이며, 재정건전성 강화와 예산편성 사전절차 준수 등을 심사해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시의회가 독일 함부르크시의회와 상생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사진은 지난 11월 9일 부산시의회 의원들과 함부르크시의회 방문단이 해운대구 마린시티에서 찍은 기념사진).

## 시의회, 함부르크시의회에 “2030세계박람회 부산 지지”

### 독일 함부르크시의회 대표단 11월 8~10일 부산 방문

부산시의회가 독일 함부르크시의회에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부산시의회와 우호교류협약을 맺고 있는 독일 함부르크시의회

대표단은 지난 11월 8~10일 부산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부산시의회와 함부르크시의회가 지난 2009년 11월 10일 체결한 양 도시간 우호 친선교류협정에 따른 것으로 격년제로 상호 방문을 이어오고 있다.

함부르크시의회 방문단은 11월 9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를 찾아 상생 협

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방문단에게 “앞으로 두 도시가 더 많은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라며 “특히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독일 정부의 지지와 성원을 보내달라”라고 당부했다.